

(주소) 17072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전화) 031-288-5300 (팩스) 031-288-5339

배 포 일	2024.11.05.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4.11.06.				
경기도박물관, 제2도약을 알리는 무장애 기증특별전 《巖巖汪汪: 만 길 벽, 천 이랑 바다》 개막		3	4	www.musenet.ggcf.kr	부서 : 경기도박물관 학예운영실 담당 : 정윤희 전화 : 031-288-5381

경기도박물관, 제2도약을 알리는 무장애 기증특별전 《巖巖汪汪: 만 길 벽, 천 이랑 바다》 개막

- ▶ 초상화와 복식 유물을 통해 되살아난 경기사대부의 삶과 철학을 만나는 자리
- ▶ 전시를 통해 장문원의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기증특별전 《巖巖汪汪: 만 길 벽, 천 이랑 바다》를 개최하여 경기도 지역 명문가들이 보관해 온 초상화와 복식 유물 등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박물관이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초상화와 복식 유물의 연구와 전시에 특화된 박물관으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시작점이 될 예정이다. 보물 2점을 포함한 10여 점의 기증품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의 제목 "巖巖汪汪(암암왕왕)"은 조선 후기의 학자 홍직필이 우암 송시열의 초상화를 묘사한 글에서 유래했다. 학자 홍직필이 송시열의 학문적 깊이와 인격적 높음을 "만 길 벽처럼 드높고[巖巖] 천 이랑 바다처럼 드넓다[汪汪]"고 표현한 것이다. 선인을 기리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 경기사대부들이 추구한 학문과 철학의 고결한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경기사대부의 정신이 담긴 유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조선 후기 성리학자인 송시열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그의 후계자인 홍직필의 기증품을 통해 경기사대부의 학문과 삶을 조명한다. 홍직필은 조선 사상사에서 중요한 '호락논쟁'과 관련된 낙론 학파의 인물로, 이번 전시는 그와 송시열 사이의 학문적 연계를 탐구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사유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2부에서는 경기도 지역 명문가들의 기증 유물들을 통해 경기사대부의 철학과 삶을 돌아본다. 성재 허전의 초상, 김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심의, 유한갈의 지석 등이 주요 전시 유물로 소개된다. 성재 허전의 초상화는 그의 학문적 업적과 인품을 담은 작품으로,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심의는 사대부의 일상복으로 각 부분이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데, 이를 모두 모아 하나의 우주가 된다. 김확의 심의는 조선 사대부들의 복식 문화와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한갈의 지석은 사대부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철학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장애 전시를 표방한다. 무장애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번역어인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물리적, 심리적 장벽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전시는 촉각 전시물과 수어 영상, 음성 해설 등을 다채롭게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경기도박물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무장애 전시를 이어가며 박물관의 접근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전시와 함께 발간된 도록에는 유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뿐만 아니라, 박물관 학예사들의 연구 성과를 담았다. 정미숙 책임학예사는 심의의 구성과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했고, 정윤희 선임학예사는 주요 유물인 <송시열 초상>의 특성과 의미를 조명했다. 김경진 학예사는 더욱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경기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다양한 부대 교육 및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매일 사전 예약 및 현장 신청을 통해 정기 전시 도슨트 투어를 운영한다.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전시를 관람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해석해 보는 '박물관 유물 속 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내년에 박물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뮤지엄 영화 피에스타'의 개막작도 전시 출품작과 연계한 영화 <관상>으로 선정했다. 전문가가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는 특강도 준비 중이다.

경기도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기증된 유물 속에 담긴 조선 사대부들의 학문적 열정과 철학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물에 담긴 깊은 의미와 기증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박물관은 앞으로도 경기 지역 명문가들의 유물을 연구하고 전시하여, 그들의 정신과 가치를 현재와 미래 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 1. 전 이명기, <송시열 초상>, 19세기 초.



사진 2. <허전 초상>, 19세기,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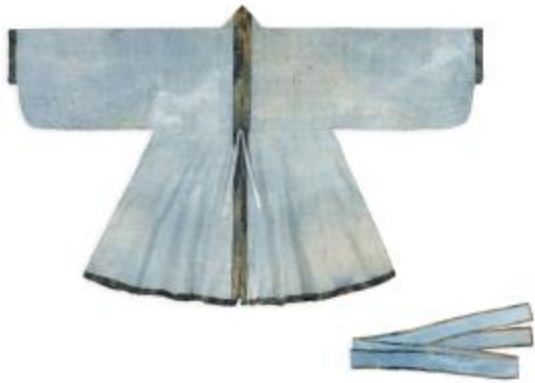


사진 3. 김확의 무덤에서 나온 심의, 17세기



사진 4. 유한갈의 무덤에서 나온 지석, 18세기